'2009 에너지절약유공대통령표창'수상

김 영 수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

"저탄소 녹색 에너지 문화 확산에 더욱 매진할 것"

"올해 초 타임지는 에너지 절약을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5의에너지'로규정했습니다. 불, 석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에너지 절약이새로운에너지패러다임의한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너지 절약은 부족한 에너지 자원을 적게 쓰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핵심키워드로떠올랐습니다."

지난달 12일 열린 에너지 절약 촉진 대회에서 건설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에너지 절약유공자로선정되어대통령표창을수상한김영수본부장은저탄소녹색성장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대두하면서 에너지 절감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 다이어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을 역임하면서 신기술개발및신재생에너지의적극적인 적용노력을기울여정부의녹색성장정책추진및에너지절감에크게기여한공로를 인정받았다. 에너지절약 촉진대회는지난1975년처음개최된이래올해로 31회를맞이하였으며, 지식경제부와에너지관리공단이주최하고있다.

김영수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사용량1억 8,000만TOE 중건축물이 24%를차지하고, 이중주택이 54%를차지하고 있다고설명했다. 주택이국내총에너지사용량의약13%를점유하고있는셈이다. 결국전세계적으로증가추세인건축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의 에너지절감이관건이될수밖에없다. 김영수 본부장, 나아가 현대건설의 에너지 절약 유공이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바로 주택 부문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을다수개발하고적용했기때문이다.

김영수 본부장은 현대건설의 에너지 절감, 저탄소녹색성장, 그린홈등과관련하여 개발을완료하였거나개발중인기술들이모두 62개에달한다고밝혔다. 그에따르면이중Switched 콘센트, G-IT 주차장LED, 대기전력 제어콘센트(USS)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들로 이미 특허를 취득하였다. 특허출원 및실용신안출원기술도 3개 보유하고있다.

"Switched 콘센트와USS는 이미 보편화되었거나기술이개방되어국내주택의에너지절감에크게기여하고있습니다. 특히, 그린 IT 기반의지하주차장 LED 조명 시스템은10만세대에적용할경우연간절감되는 전력량이 약 4만MWh에 달합니다. 2.5MW급소수력발전소2기를건설하는 것과같은효과를거둘수있지요. 이기술은 지난해부터 인천검단 힐스테이트 2차 현장부터도입돼현재1만 2,000세대의지하 주차장에 적용하고 있는데 연간 7억 2,000만원의전기료가절감될것으로기대됩니다."

김영수본부장은그간공급물량의확보에만치중하던주택사업을에너지효율적인주택건설로전환시키기위해녹색기술 및신재생에너지관련분야의기술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결과단열성능향상과에너지사용을억제하여난방비를줄이는패시브하우스기법을 반영한 주택 설계가 개발되었다.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시스템 ·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주택에 적용하고, LED 등 고효율기자재를개발하여에너지제로주택을건설하는데도박차를가하였다.

"이번대통령표창수상은우리회사의주거상품및품질차별화를통한열정과노력의결과물이라할수있습니다. 이러한성가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에너지 절감형 주택건설및보급에앞장서는그린홈대표건설사로서그입지를확고히할것이며, 그린홈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정부의 저탄소 녹색에너지문화확산에더욱매진하겠습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